

## 책과 책의 대화

빅토르 위고는 「노틀담의 꼽추」에서 건축을 살해하고 새로운 시대의 문화의 주 교통수단이 된 책에 대한 예찬론을 펼친 바 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모든 문화적인 영역들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이 있고, 그 시대정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매체가 있기 마련이다. 위고의 책에 따르자면 활자매체인 책이 권세를 누리기 전에 실용적인 조형예술인 건축이 시대정신의 담지자로서 일세를 풍미했던 모양이다. 건축을 살해한 책은 그뒤 긴 세월동안 시대정신에 맞닿아 있는 창조적이고 예민한 영혼들의 느낌과 사상을 공간을 넘어 전파하고 시대를 격하여 전승하면서 문화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오늘날 컴퓨터로 대표되는 전자매체들이 서서히 문화의 주 교통수단으로서 책이 갖는 위치를 위협하고 있다. 미래의 어느날 활자매체보다 더 생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들에 의해 살해당할 때까지 책은 정보의 주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행할 것이다. 여전히 책은 문화의 주 교통수단이다.

또한 문화의 교통수단인 책들은 시대를 격하여 존재하면서도 그 자체로 완결되거나 고립되지 않고, 서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가 서로에게 보조 텍스트로서 기능하고 있다. 동시대의 책들이 같은 대상을 두고 다르게 서술하고 있는가하면, 과거의 책에 대해 현재의 책이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눈다. 현재의 책은 과거의 책에 대해 보조 텍스트로서 기능하며, 정확한 이해를 도와주는 친절한 안내자가 되고 있다. 반목과 질시의 역사 속에서도 문화의 역사는 언제나 상호 우호적인 것이었고, 책의 역사도 그렇듯 상호 우호적인 것이었다.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는 그 내용면에 있어서나 판매부수에 있어서나 다양한 화제를 불러일으킨 책이다. 쉽고 재미있고 명쾌하다. 책의 장점은 두루 갖춘 책이다. 특히 유교수의 세련되고 깔끔한 말솜씨와 문화유산들에 대한 현대적이고 명쾌한 해석은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것이다. 다산과 다산의 저술 「목민심서」에 대해서도 유교수의 재치있는 입담은 친절한 안내자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

만약 단군 갑자 이래 이 땅의 가장 존경받을 인물을 꼽는 한국 께럽의 사회조사가 있다면 「학빠리」 사회에서는 그분이 단연코 1등을 차지할 것이다. 그분을 알기 위한 몇권의 필독서가 있다. 송재소 번역의 「다산선선」(창비), 박석무 번역의 「다산선문선」(창비), 윤사순 편 「정약용」(고려대), 박석무저 「다산기행」(한길사), 최익한저 「실학과와 정다산」(청년사) 등의 책과 이이화의 「목민철학의 이론가」 같은 논문을 읽어보면 정다산의 모습이 제각각이다. “세상에는 다산을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 다산을 아는 사람도 없다”는 말이 맞는 생각이 든다. 그 분이 지닌 인간적인 총체성은 어디로 가고 자기 전공에 따라서 실학자도 되고, 사상가도 되고, 경류가도 되고, 경학자(經學者)도 되고, 심지어는 천주학했던 사람도 되고 또 의학자, 약학자, 음악가까지 되는가? 이런 판국에 내가 무슨 소리를 어떻게 들으려고 다산을 아는 척하겠는가? 그래서 나는 내 전공대로 그분의 글씨와 그림만 얘기하고 지나갔던 것이다.

다만 일찌기 위당 정인보 선생이 “다산 선생 한사람에 대한 연구는 곧 조선사에 대한 연구

요, 조선근대사상의 연구요, 조선혼의 밝음과 가리움 내지 조선 성쇠존망에 대한 연구이다”라고 설파한 것, 갑오농민 전쟁 때 동학군이 선운사 마애불 배꼽에서 꺼냈던 비기(秘機)는 곧 「목민심서」였다는 전설, 심지어는 월맹의 호지명이 부정과 비리의 척결을 위해서는 조선정약용의 「목민심서」가 필독의 서라고 꼽은 사실, 이런 것으로 그분의 위대함의 보론으로 삼고 싶다.

다산이 후대에 끼친 영향은 학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실천적 경제적 측면에서 전두환 대통령도 해외출장 때에는 그 어려운 책, 그래서 나같은 천학은 몇장 넘겨보지도 못한 「목민심서」를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 보는 데서 열심히 읽었다는 사실, 한준수 연기군수의 관권 총선 비리 폭로장은 「목민일기」였다는 사실로써 충분하지 않은가?

—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

유홍준의 짧은 글은 「목민심서」 책읽기의 한 방식과 「목민심서」의 현대적인 의미에 대한 일화들을 재미있게 제시하고 있다.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 좋은 책은 서로 대화하면서 존재한다. 상호대화로서 깊어지고 넓어진 책의 세계는 여전히 우리 시대 문화의 주 교통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다. 물론 이 말에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들, 이미 우리의 시대는 책의 시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매체인 컴퓨터 등속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책을 봐야 하고, 보고 있다는 사실 또한 흥미로운 것이다.

## 출판저널

통권 제161호 / 1995년 1월 5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한  
편집주간—이승우  
편집장—김지원  
기자—정혜옥 이성수  
                  김중식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사진—김홍진

업무차장—운동호  
업무·광고—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재)한국출판공고  
상임이사—최학수  
총무부장—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공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타이피아

출판저널—110-190 서울 중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책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왜 이토록 엄청난 의학적 발견이 묻혀져야 했는가?

“도롱뇽이 할 수 있다면 인간도 할 수 있다!”  
도롱뇽은 잘려나간 팔다리는 물론 심장까지도 완벽히 재생해 내는데, 인간은 그럴 수 없는 것일까? 30년에 걸친 집념의 연구 끝에 로버트 베커 박사는 인체도 재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실들을 밝힌다. 이 책 「생명과 전기」는 그 연구의 충실한 기록인 동시에, 한 응고집 의학자가 타성에 젖은 기성의학과에 정부를 상대로 외롭게 벌인 드라마틱한 투쟁의 기록이다. 인류에게 복음이 될 수도 있는 그의 발견을 기성의학계는 왜 이단시했으며, 정부와 軍 당국은 왜 암암리에 연구의 진행을 방해했을까?

- ◆ 재생과 치유, 생명현상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바로 전기!
- ◆ 침술, 초감각, 암의 메커니즘이 새롭게 규명된다!
- ◆ 생명의 기원은 반도체성 유기물, 뼈는 압전 소자로 되어 있다!
- ◆ 지금 핵무기보다 더한 위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로버트 베커 외/공동철 옮김/값 7,500원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팩시 739-8791

